

# 1. 이매방의 예술세계

## 가. 김명숙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

I. 머리말	IV. 이매방의 예술세계
II. 이매방의 생애	V. 맺음말
III. 주요작품 및 춤의 특징	참고문헌
	Abstract

## I. 머리말

“우리 춤은 자연이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이매방(1927~)은 이 시대 한국 춤의 살아있는 정신이자, 진정한 춤꾼이다. 1927년 목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춤추기를 즐긴 이매방은 전라도 지역의 이름난 명무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문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승무」, 「법고」, 「검무」 등의 춤을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팔십 평생을 오로지 전통춤에만 매진한 이 시대 최고의 전통춤꾼이다. 이렇듯 걷기 시작할 무렵인 어린 시절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하여 활발한 전통춤 공연 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여 오로지 전통춤 외길을 고수한 이매방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목관 문화훈장’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된 「승무」와 제 97호 「살풀이춤」을 비롯하여 「검무」, 「입춤」, 「장검무」, 「장고춤」, 「사풍정감(선비춤)」, 「화랑도」, 「승천무(대감놀이)」, 「기원무」, 「보렘무」, 「북소리」가 있다.

이세기는 이매방의 춤을 ‘안으로는 한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허공을 다스리는 춤’으로 평하며, 그의 저서에서 ‘그가 춤추기 시작하면 온몸으로 삼라만상을 보여주고 산천초목을 움직인다. 미끌어질 듯 날 듯 말 듯 비스듬히 포개고 때는 보법이며 무겁게 들어올렸다가 날카롭게 뿌리치는 광대한 능선, 기 날개처럼 포개고 펼쳐지는 장삼자락에는 냉혹한 귀기마저 감돌아 관객은 어느 순간 전율에 몸을 뒤흔다. 아름답고 눈부신 춤만으로 그의 모든 허물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sup>1)</sup> 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렇듯 이매방은 관객들의 오장을 속속들이 뒤흔들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타고난 전통춤꾼으로 평가된다. 모든 이들이 신무용 스타일의 무대지향적인 춤만을 추구할 때, 그는 앞도 뒤도 안가리고 우리의 전통 그대로만을 갈고 닦으며 전통춤을 고집한 이 시대 최고의 춤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괴팍한 성격으로 무용계의 이단아라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신무용과 외국의 여러 문명의 난입에도 불구하고 전통춤 하나만 고수해온 진정한 명

1) 이세기(2002). 『빛을 가꾸는 에피큐리언』, 푸른 사상사, p. 319.

무(名舞)인 것이다.

이렇듯 한국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추었으며, 음양의 조화가 정중동(靜中動), 대삼소삼(大杉小杉), 양우선(兩雨線)의 춤 기법 하나하나에 뿌리내려 있는 이매방의 춤을 분석하고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것은 현시대 무용 인물사를 정리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매방은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논문을 정리하는데 큰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싶다. 현존하는 인물을 분석하고 평가 내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특히 자료부족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구한말 이래 전혀 변질되지 않고 전통춤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고찰하는 것이 오늘날 무용학계의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자료부족에서 오는 여러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며,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근대 한국무용사에서의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매방에 관한 전서, 논문 등과 같은 이론적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그 동안 이매방을 인터뷰한 대담자료와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본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매방의 삶의 철학과 주요 12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춤의 특질과 예술세계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질풍노도와도 같이 지나간 이매방의 생애 속에서 그의 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이매방’이라는 인물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작품에서 나타나는 춤의 특질과 예술세계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으로 평가되는 이매방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주요 12작품과 춤 특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이매방의 생애

이매방은 1927년 목포에서 아버지 이경식(李敬植)과 어머니 조병림(曹炳林) 사이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걸음마하기 시작할 때부터 누나들의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며 춤추는 흥내를 냈다’<sup>2)</sup>고 하는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전통춤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매방의 생애는 크게 나누어 보면 다섯 기로 살펴볼 수 있다. 집 가까운 목포권변을 드나들며 춤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매란방의 영향을 받던 초년기 시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대조와 박영구에게 북과 「승무」를 전수받기 시작한 중학교 시절, 임방울 악극단과 함께 순회공연을 다니다 부산에 정착하여 결혼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청년 시절, 1980년대 서울 마포에 정착하여 연구소와 공연활동에 열의를 보이던 중년 시절,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후, 후진양성과 공연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매방의 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전남 진도에 위치한 조도 출신의 함국향이라는 기생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며, 그 후에는 권변에서 춤, 북, 소리 등을 가르쳤던 집안의 할아버지별인 이대조(李大祚)에게서 춤을 배우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에 남다른 흥미를 가졌던 이매방은 그에게 남성다운 기질을 요구했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것을

2) 이매방(1978). 영육의 천직. 『춤』 1978년 6월호, p. 98.

멈추지 않았다.<sup>3)</sup>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 모르게 권번을 자주 찾아 올 정도로 그가 춤추는 것을 뒤에서 독려하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매방의 춤에 대한 열정은 어린 나이 때부터 집에서 먼 거리인 권번을 빠지지 않고 춤을 배우러 다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매방이 권번에서 처음 배운 춤은 오늘날 기본(基本)에 해당하는 굿거리장단에 맞춘 「허튼춤」이었다. 이 춤은 권번에서 행해지는 모든 춤의 기초였다고 한다. 「허튼춤」 이외에도 그는 「승무」, 「검무」등을 열 여명 정도의 동기(童伎)들과 같이 습득하였다. 이러한 권번에서의 춤 교육과정은 집안 할아버지별인 이대조가 목포 권번의 사범으로 있는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권번 동기 교육생들에 비해 나이도 훨씬 어리고, 남자아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지만, 당시 이매방의 춤 소질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음을 여러 인터뷰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권번의 다른 학습기생보다 어린 이매방이 직접 그녀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기도 하였고, ‘꼬마선생’이라 귀여움을 받으면서 춤을 정진해 나간 것이다.

또한 그는 춤 뿐만 아니라 바느질 또한 수준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매방은 자신의 바느질 솜씨에 대하여 “특별히 배운 것이 없어요……그리고 내가 처음 춤을 배운 데가 권번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있던 기생들은 모두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 때 어깨너머로 훑쳐본 것이 자꾸 하다보니 그럴듯한 솜씨로 발전한게지”<sup>4)</sup> 라며 이 시절부터 익힌 바느질 실력으로 현재에는 모든 공연의 의상과 소품을 본인 스스로 제작할 정도로 문화재급 바느질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재학시절, 이매방은 중국에서 운수회사를 하던 형의 권유로 가족들과 함께 중국 대련(大連)으로 건너가 살게 된다. 대련에서 3년, 청진에서 2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인 목포로 돌아오게 되는데, 중국에서의 5년 동안의 시간이 이매방의 춤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기를 맞이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1939년 그의 나이 12세에 만주 대련에서 무용가 배우자와의 만남과 그녀의 인정으로 배우자 공연무대에 출연한 것이 무용계의 데뷔가<sup>5)</sup>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극 배우 중 한명이었던 매란방(梅蘭芳)의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소 이매방의 춤자질을 인정하였던 북경의 누님 주선으로 매란방의 공연을 접할 수 있었고 가끔 춤을 배우기도 하는 등, 한국 전통춤과는 색다른 이국적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후에 이매방의 「장검무」 등의 창작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매란방과의 인연으로 6·25 이후 이매방은 당시 본명이었던 이규태(李圭泰)에서 매란방의 이름을 따라 이매방이라는 예명을 지었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목포로 돌아와서 이매방은 본격적으로 이 대조에게 「승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이매방 춤 인생의 두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다. 춤에 눈뜨기 시작할 무렵이라 이 대조는 이매방에게 광주 권번의 사범으로 있는 박영구에게 북과 「승무」를 배울 것을 권하였고, 이매방은 착실히 이대조와 박영구의 「승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매방은 인터뷰에서 당시 승무 음악은 현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한다.<sup>6)</sup> ‘세면염불’이라고도 불리는 호남제(湖南製) 승무음악은 경기류의 삼현육각 승무음악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음악은 악기편성이나 장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호남제 음악만의 독특한 가

3) 앞 글, p. 96.

4) 성기숙(2001). 원로예술인에게 듣는다-무용가 이매방. 『문화예술』. 2001년 2월호, p. 71.

5) 성경린(1991). 한국무용의 맥락 천자의 명무 - 이매방. 『무용한국』. 1991년 봄호, p. 80.

6) 2004년 3월 29일. 필자와의 인터뷰.

락이 구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호남제 승무음악이 원래 고유의 호남류 승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제 음악을 구사하던 악사들이 모두 타계하고 현재 전승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호남제 음악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이매방은 「승무」에 연주되었던 호남제 음악 대신 현재에는 경기류 승무 음악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매방이 「승무」를 정식으로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목포 역전에서 열린 명인명창대회 가설무대에서이다.<sup>7)</sup> 국악계의 대가 임방울이 명창들을 모아서 야외 가설무대를 만들어 명인명창공연을 할 무렵, 박봉선 대신으로 승무를 춘 것이 이매방의 첫 공식 무대인 셈이다. 당시 명인명창대회는 「승무」로 막을 여는 것이 관례였는데, 개인사정으로 박봉선이 무대에 서지 못하자 공여지책으로 이매방이 대신 무대에 선 것이다.<sup>8)</sup>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매방의 「승무」는 박영구와 이대조에게서 배운 좋은 멋과 가락만을 따서 만든 이매방류 승무가 된 것이다. 이매방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 당시 스승 두 분께 배운 춤이 현재 자신이 추는 춤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명인명창대회같은 무대에서 승무를 추던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승무하면 이매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춤은 대단하게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매방이 목포공업고등학교 졸업 무렵 그의 춤의 독려자이자, 그를 최초로 인정해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뒤 28세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된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이매방은 세 번째 무용인생을 겪게 된다.

권변에서 춤을 배우며 꼬마선생이라며 귀여움을 받던 시절을 거쳐,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매란방과 교류하며 공연하던 초년기 시절, 박영구, 이대조에게 본격적으로 무용수업을 받던 시절, 부모님 작고 후, 임방울의 악단에 소속되어 전국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그 세 번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방울 악단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하였다. 항상 「승무」, 「허튼춤」 등 전통춤만을 고집하던 그에게 공연 성격에 따라 양음악에 맞춘 신무용 스타일의 춤을 요구받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춤 세계와 맞지 않아 이매방은 악단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악단에 돌아가는 과정의 반복을 거치게 된다.

이후 이매방은 6·25 동란을 거쳐 여기저기 무용연구소에서 선생으로 있다가 1968년 일본 순회공연을 나서게 된다. 순회공연 이후, 부산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다. 그는 부산 동래권변에서 동기들을 모아 「승무」, 「허튼춤」, 「검무」, 「살풀이춤」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한 작품을 마칠 때마다 몇 개월씩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전통춤을 전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매방은 김진걸의 문하생으로 같은 춤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인 김명자(金明子)를 만나게 된다.

1969년 이매방이 42세가 되던 해 부산에서 무용 활동을 하던 김명자를 만나 뒤늦게 결혼하여 연구소에서 후진양성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평소 그의 춤을 귀하게 여겼던 주위의 지인들이 중앙무대인 서울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였고, 1977년 이매방은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마포 작은 연습실을 마련하여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매방 춤인생의 네 번째 변화이다.

그는 결벽증이라 할 정도의 끝은 성품과 솔직함으로 당시 서울 무용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단아라는 평까지 받게 된다. 당시 이매방은 동갑내기 친구인 정인방(본명 정인하)과 여러

7) 2004년 3월 29일. 필자와의 인터뷰.

8) 성기숙(2001). p. 74.

공연무대를 함께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정인방은 서울에서 무용연구소를 경영하며 전통춤 중, 「학춤」과 「신로심불로」를 특히 잘 추었다고 이매방은 인터뷰에서 회고하였다. 또한 이매방은 발레를 전공한 이인범(본명 이영일)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이매방 춤인생의 다섯 번째 전환기는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보유자, 1990년 제 97호 「살풀이춤」예능보유자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후진양성에 힘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 이매방은 100여 명의 「승무」, 「살풀이춤」의 이수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1986년 아시안게임 축전행사, 1988년 문화예술축전 등 국내의 주요 공연과 여러 차례의 개인공연을 통하여 우리 전통춤 보급에 앞장서 왔다. 또한 1978년 프랑스 렌느 시 ‘세계민속예술제’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공연한 것을 필두로, 미국, 일본의 우수 축제를 비롯한 대규모 무대에 초청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에 이어, 1998년 7월 프랑스 아비뇽 축제측의 초청으로 혼이 실린 한국춤의 정수를 보여줌으로써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매방의 생애를 크게 다섯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매방의 삶은 곧 그의 춤에 그대로 반추되어 단순한 기교를 초월하여 심혼을 다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춤으로 전달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이매방 춤인생에서 역사적으로 같이 활동하며 교류하였던 당시의 무용계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매방은 자신 춤의 근간이 되는 스승, 이대조와 박영구는 당대 최고의 춤꾼이었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다. “집안 할아버지별인 이대조 선생은 당대 최고 고수로 활동하던 한성준 선생과 김금옥(권번의 춤 사범)에게서 같이 사사받은 절친한 사이였다. 다만 이대조 선생이 경성으로 올라가지 않아 중앙무대에서 유명하지 못했지, 사실 그분의 「승무」는 최고 중의 최고였다”<sup>9)</sup>라며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스승이었던 이대조와 박영구는 이매방에게 춤을 추되, “무겁고 또 무겁게 추라”고 끊임없이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금 그의 춤이 끈적끈적한 무게를 담아 시공간 속을 초월한 듯한 무념무상의 춤가락을 선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이매방은 어린 시절 자주 공연을 보았던 조택원, 최승희, 배구자 등의 무용가에게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택원의 ‘아리랑’이란 작품은 나의 춤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지만 활달하여서 잘 본 것으로 기억되며, 최승희는 복식이나 소도구는 한복을 입었으나, 머리장식, 구두 등은 태국계통이나 인도, 서양 등 여러 가지 나라의 양식들을 들여와 이국적으로 작품을 만든 것<sup>10)</sup>으로 기억한다. 그는 최승희의 춤을 특이한 기교가 있고, 서구적인 몸매에서 나오는 관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또한 배구자는 우리 전통춤과 최승희류 신무용의 중간 스타일을 추구하였는데, 우리 춤의 멋을 아는 춤꾼이라고 하였다.

이매방의 절친한 친구이자 춤인생의 동료였던 정인방과 이인범에 대해서는 “정인방은 서울에서 연구소를 하면서 전통춤을 같이 춘 제일 친한 친구였어. 그와 같이 지방 순회공연도 다니고, 특히 「학춤」과 「신로심불로」를 잘 봤지. 이인범은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발레를 배운 친구였는데, 어려울 때 힘이 많이 되는 친구였어”<sup>11)</sup>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9) 2004년 4월 5일. 필자와의 인터뷰.

10) 이매방(1978). p. 101.

11) 2004년 4월 5일. 필자와의 인터뷰.

이렇듯 이매방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무용가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자신의 춤을 정립하고 후학들에게 전통 그대로 전승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 Ⅲ. 주요 작품 및 춤의 특징

이매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승무」와 제 97호「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로, 그 이외에 「검무», 「입춤», 「장검무», 「장고춤», 「사풍정감(선비춤)», 「화랑도», 「승천무(대감놀이)», 「기원무», 「보림무», 「북소리」의 10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1984년 ‘북소리 I’ 공연 이후, 매년 개인공연 때마다 이 12작품들을 제자들과 함께 선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는 「승무」와 「검무」를 법무(法舞)라 하여 전통 그대로 전승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강조하였으며, 그 작품을 모두 전수해야만 「살풀이춤」을 출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sup>12)</sup> 「살풀이춤」은 일종의 즉흥무이기 때문에 법무를 먼저 습득한 무용수가 자신의 감정을 멋으로 표출하는 춤이라고 하였다. 이매방의 주요 12작품을 공연 프로그램<sup>13)</sup>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승무」

「승무」는 북가락, 세찬 장삼놀음, 빼어난 발디딤새가 장관을 이루는 춤으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품위와 격조가 높은 춤이다. 이 춤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류의 승무로, 1935년경 조부인 이대조 선생에게서 학습한 다음 반세기의 긴 연륜을 고수하고 또 연마하여 극치의 아름다운 예술로 창조해 놓은 작품이다. 「승무」의 춤사위는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전한 예술형식을 갖춘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춤의 미적 본질은 인간본연의 희비를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켜 구동적 진리를 갈구하는 춤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유려하게 흐르는 춤의 조형적 선,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춤은 힘차고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는 듯 매서운 발디딤새, 가슴을 울리고 영혼마저 뒤엎어 버릴 듯 세차고 풍요하면서도 멋들어진 북놀음<sup>14)</sup>은 보는 이 모두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예(藝)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춤이다.

이매방이 「승무」를 정식으로 무대에서 선보인 것은 중학교 시절, 명인명창대회 무대였으며, 서울에서 단독으로 공연되었던 것은 1959년 4월 을지로 입구의 원각사 무대이다.<sup>15)</sup> 이후 미국 케네디센터 초청공연, 프랑스 렌느 세계민속예술제 한국대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일본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 춤은 이매방이 보유한 여러 작품 중, 최고 경지의 춤이라 할 수 있다.

#### 「검무」

「검무」는 이대조와 이창조의 춤맥을 잇고 있는 호남검무로서 섬세한 기예와 날렵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춤이다. 이 춤은 신라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명 「검기무」라고도 하고 「황랑무」라고도 한다. 이 춤은 전통적으로 「승무」와 함께 법무(法舞)로 여겨져 법도 그대로 전승되어야 하는 중요한 춤이라 할 수 있다. 「호남검무」는 광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구한말부터는 이 지역의 명무로 이름난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등에게 전승되어 오다 이매방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춤은 엄불장단, 자진타령에 맞춰 까치걸음, 잉어걸이, 비정비팔, 상오리, 대머리 등의 춤사위가 이어지며, 무겁고 장중하던 춤사위는 중반 이후 흥겹고 경쾌한 춤사위로 전환되어 활달한 춤으로 바뀐다. 특히, 이 춤에서 가장 어렵

12) 2004년 3월 29일. 필자와의 인터뷰.

13) 2001년 12월17~18일. 『외길인생 이매방 춤 대공연』. 프로그램 자료.

14) 구희서·정범태(1985).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p. 37.

15) 성경린(1991). p. 80.

고 볼 만한 춤사위는 허리를 뒤로 젖히고 공중을 나는 듯 빙빙 도는 연풍대라 할 수 있다.

###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된 이매방류 살풀이춤은 고도로 다듬어진 전형적인 기방예술로서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으로, 정적미의 단아한 멋과 함께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悲壯美)가 몸에 스며 있다. 「살풀이춤」은 ‘극도의 긴장과 절제, 어둠과 밝음, 괴로움과 갈등을 교차하면서 정(靜)속에 폭발을 감춘 최고의 무작’<sup>16)</sup>이라 할 수 있으며,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신비스러움과 자유스러움 그리고 환상적인 춤사위는 예술적 차원을 뛰어 넘어 종교적 경지에 이른다. 「살풀이춤」의 살풀이는 살 즉, 살의 액을 제거 소멸시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가져오고 나아가 행운을 맞이한다는 종교적 속성이 강한 춤이다. 또한, 이 춤은 고고한 개성의 청아한 멋과 정중동의 유려함이 살아 숨쉬는 춤으로, 발디딤은 온누리를 세밀히 다지는 듯하며, 정지하는 속에 가려진 내면의 세계와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는 태고와도 같은 적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이 춤의 무복으로는 그가 손수 제작한 옥색치마 저고리에 꿰자를 두르고 여자는 아얌, 남자는 조바우를 쓰고 추게 되는데, 이는 살풀이춤이 즉흥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춤추는 이의 미적 안목에 따라 아름답게 구성하여 입을 수도 있다고 한다.<sup>17)</sup>

이매방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살풀이춤은 모든 전통춤을 습득하고 나중에서야 춤출 수 있는 춤으로, 자신의 혼과 멋이 배어져 나오는 즉흥춤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가 어린 시절 기억되는 살풀이춤의 명인으로는 목포 권번의 고산옥, 김연수, 성산호 등의 기생이 멋들어지게 춤을 추었다고 회상하였다.

### 「입춤」

「입(立)춤」은 모든 전통춤 움직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춤으로 「허튼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춤은 권번의 춤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던 춤으로, 호남 기방예술의 정통 계보를 잇는 춤으로 세련미와 애잔하고 요염한 여성적 교태미가 부각된 이매방류 전통춤 특유의 미학과 맥을 지닌 춤이다. 흥풀이춤의 일종인 「입춤」은 흥과 멋이 춤의 주체이며, 분위기에 따라 흥과 멋을 조율하면서 출 수 있는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이매방류의 「입춤」은 목포 권번의 춤사범이었던 이대조의 춤맥을 따른 춤으로 당시 목포 권번에서는 이 춤을 완전히 익히고 난 다음에야 「승무」, 「검무」, 「살풀이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 「장검무」

「장검무」는 중국의 유명한 경극 배우 ‘매란방’에게서 배운 검무의 기본 춤사위와 우리 전통 검무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1950년대에 창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륙적 정취가 돋보이는 현란하면서도 장쾌한 칼사위와 우리 전통 검무가 지닌 유연하고 흥겨운 춤사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원래 매란방으로부터 배운 검무는 경극의 음악적 요소가 강한 중국춤이었으나, 이매방이 한국적인 정서를 살릴 수 있도록 ‘동살풀이’에 맞춰 새롭게 작품화하였으며, 사용된 춤사위는 이대조의 친구인 이창조를 비롯하여 박영구로부터 배운 전통 검무가 기본 골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장검무」는 1959년 서울 원각사에서 ‘개인무용발표회’ 때 무대에 초연된 후, 현재까지 공연되어지는 이매방의 창작춤이다.

### 「장고춤」

「장고춤」은 전통 농악의 설장고춤에서 이끌어낸 가락과 춤사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신무용 계통의 춤이다. 이 춤은 전통 농악의 설장고춤에서 가락과 춤사위를 이끌어낸 신무용 계통의 춤으로, 농악이 지닌 흥과 신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동작과 유연한 손짓춤, 그리고 장고치는 가락이 섬세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러 춤사위로 그 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데 혼자 출 수도 있으며, 민속무용의 특징인 공동개성체제적 군무의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춤이다. 이 작품은 전통의 방식대로 치맛자락과 장고를 허리에 동여매고 오른손의 채와 왼손의 손바닥이 두드려 내는 각기 다른 소리의 조화로 춤사위를 이끌어 나가며, 전통 농악의 설장고춤을 예술적으로 한차원 높게 승화시킨 이매방의 장고춤은 즉흥적 멋과 민속의 채취가 물씬 풍기는 춤이라 할 수 있다.

16) 이세기(2002). p. 320.

17) 2004년 4월 5일. 필자와의 인터뷰.

### 「사풍정감(선비춤)」

「사풍정감」은 학덕을 고루 갖춘 고고한 젊은 선비도 때로는 한과 흥의 운치에 즉흥적으로 젖어든다는 선비의 내면세계를 춤사위로 표출시킨 남성적인 기품이 살아있는 춤이다. 이 작품은 「한량무」, 「즉흥무」, 「흥춤」, 「선비춤」과 같은 명칭의 남성춤으로, 전통과 권위 있는 사회질서를 기본적 틀로 하는 사대부계층의 젊은 선비들의 생활 한 단면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선비의 멋스런 풍유와 의젓함이 주조를 이루는 춤으로 유유한 남성적 기품과 내면의 심성을 자유로운 감정으로 표현하는 고요한 역동성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전해지는 「한량무」는 두 가지 유형의 춤이 있다. 하나는 무용극 형태의 춤으로 한량, 색시, 승려간의 애정관계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다른 형태는 흥춤의 「한량무」로서 한량의 기품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흥춤의 춤은 그 자체로서 한량이라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1990년대 이후 이 춤은 특히 화류풍류객들에게 많이 추어졌다.

### 「화랑도」

「화랑도」는 전장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은 화랑의 젊음과 순수한 열정을 춤으로 표현한 1950년대 창작춤으로 그려낸 호방한 기상이 넘치는 남성춤이다. 이 춤은 1950~60년대 ‘광주극장’, ‘원각사’, ‘전주예술회관 개관공연’ 등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젊은 시절 창작춤으로, 활달한 춤사위와 함께 어우러지는 애잔함이 돋보이는 추억속의 작품이다.

### 「승천무(대감놀이)」

「승천무」는 무당춤의 연희적 요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창작춤으로 춤사위의 변화무쌍한 민첩함과 오염한 교태미, 그리고 보는 이의 신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드라마틱한 춤이다. 이 작품은 무당이 굿판에서 추는 주술적, 제의적 춤이라기보다는 연희적 기능 즉, ‘무감선다’하여 구경꾼들이 무당에게 별미(돈)를 주고 신옷을 입고 노는 춤을 추는 경우와 같이 무당 스스로 제의와는 관계없이 춤기량을 보여주는 여흥놀이춤의 성격이 강하다.

이 작품은 1954년 서울 계림극장에서 여성창극단 ‘삼성국악단’ 공연 때 처음 무대에 올려졌으며, 사용되는 무복과 무구의 소품은 이매방 자신이 직접 고안, 제작한 것으로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그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승천무」는 그가 직접 출연하여, 악사들의 연주 장단에 맞춰 펼쳐지는 무녀의 춤으로, 이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신명의 작품이다.

### 「기원무」

「기원무」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축원무로서 중우하고 화려함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흥을 경기무속의 다양한 장단으로 한층 고조시키는 멋스런 춤이다. 이 작품은 국태민안을 위한 축원무로서 궁중의 복식을 입고 경기무속 장단에 맞춰 최근 새롭게 안무한 춤이다. 그 내용은 왕비가 궁중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진 궁 밖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애절함과 이를 위한 기우제를 묘사한 춤이다. 이 작품은 우아하고 고차원적인 예술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흥을 무속의 푸살, 엇머리, 봉장취 등의 다양한 장단에 맞춰 한껏 고조시킨 멋스런 춤이다.

### 「보림무」

「보림무」는 불교 의식무의 춤사위와 조형미를 완전한 예술형식으로 완성시킨 독보적 창작춤이다. 특히 삼고무, 오고무의 빼어난 북가락의 기예는 보는 이의 혼을 완전히 앗아가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보림(普念)은 보시염불(普施念佛)의 약어(略語)로 보시(普施)는 불가(佛家)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나 법(法)을 널리 베풀어 축원한다는 뜻이다.

「보림무」의 음(音)은 전남(全南) 옥과(玉果) 출신의 신방초(申芳草)에 의해 전승되어진 완전한 남도(南道) 시나위조인 계면조로 되어 있지만, 악구(樂句)의 끝을 위로 뻗어서 끝내고 있는 점 등은 입창의 특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 작품은 불교 의식무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法鼓) 등의 춤사위와 가락 그리고 무복의 조형미를 가미시켜 하나의 독립된 무대예술로 완성한 이매방의 독보적인 창작춤이다. 「보림무」의 전반부는 불교적 장중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유려한 춤사위로 이어지며, 후반부에서는 화려한 북놀음이 펼쳐지는 작품이다.

### 「북소리」

「북소리」는 이매방의 창작춤인 「보림무」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북춤으로 그가 직접 안무한 삼고무, 오고

무의 빼어난 북가락 기예는 보는 이의 혼을 온전히 앗아가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위와 같이 이매방의 주요 12작품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춤 외에도 그가 194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작되었던 작품을 매회 공연 때마다 수정·보완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이매방은 호남류 전통춤을 고수하던 이대조, 박영구, 이창조 등의 스승에게 직접 전수받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승무」와 「살풀이춤」 이외에도 「검무」, 「입춤」을 배웠다. 이 네 작품은 과거의 춤, 즉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야하는 전통춤이다. 이러한 이매방은 권번을 드나들며 여러 스승에게 이러한 전통춤을 전수 받았는데, 이대조에게 「승무」와 「북춤」, 박영구에게 「승무」, 「검무」, 「법고」, 이창조에게 「검무」를 주로 배웠다고 한다.

특히, 그는 「승무」, 「검무」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 삼현육각에 맞춰 추는 춤으로, 무작과정, 무복, 장단 등을 법도대로 추어야하는 법무(法舞)라고 강조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승무」와 「살풀이춤」이외에도 「검무」 또한 호남검무의 맥을 잇는 중요한 전통춤이니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당국의 문화재 지정 현실을 아쉬워하였다.<sup>18)</sup> 「입춤」은 권번에서 행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춤이며, 「살풀이춤」은 이 모든 전통춤을 습득한 후에야 비로소 출 수 있는 즉흥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춤 네 가지 이외에 1950년대 개인무용발표회에서 선보인 창작춤 「장검무」, 「승천무」, 「화랑도」가 있다. 「장검무」는 1959년 원각사에서 초연한 것으로 중국의 경극 배우 매란방에서 전수받은 대륙적 요소가 강한 경쾌한 검무를 바탕으로 박영구와 이창조에게서 배운 호남검무가 기본 골격이 되어 창작화한 작품이다. 「승천무」는 1954년 서울 계림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화랑도」 또한 1950년대 창작한 작품이다. 1950년대 그가 안무한 이 작품은 화랑, 검무, 무당 등 전통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장단에 맞추어 만든 한국적 정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장고, 북, 바라 등의 국악기를 이용하여 화려한 춤사위와 가락이 특징인 「장고춤」, 「보렘무」, 「북소리」는 다양한 장단과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흥겨운 창작 작품이다. 「장고춤」은 전통 농악의 설장고에서 이끌어낸 가락과 춤사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신무용 계통의 창작춤이다. 「보렘무」, 「북소리」는 그의 빼어난 음악 해석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속 장단을 구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이매방이 옛 스승으로부터 고스란히 전수 받은 북가락에 그가 고안한 삼고무, 오고무, 칠고무 등의 여러 북가락의 빼어난 기예를 동반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사풍정감」과 「기원무」가 있다. 선비춤이라도 불리는 「사풍정감」은 「한량무」계통의 춤으로 옛 선비의 유유자적한 기품과 멋을 절제 있게 표출하는 남성춤이라 할 수 있다. 「기원무」는 다양한 무속의 장단을 사용한 축원무 형식의 창작춤으로, 궁중복식을 착용하여 중우하고 화려한 여성미가 넘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매방의 주요 12작품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 첫째, 여러 스승에게서 전수받아 계승해오고 있는 「승무」, 「살풀이춤」, 「검무」, 「입춤」, 둘째,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1950년대 활발하게 안무한 「장검무」, 「승천무」, 「화랑도」, 셋째, 장고, 북, 바라 등 국악기를 이용하여 흥겹고 다양한 전통 춤사위를 구사하는 「장고춤」, 「보렘무」, 「북소리」, 넷째, 한량무와 태평무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매방 본인이 창작, 안무한 「사풍정감」, 「기원무」- 분석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이매방의 주요 12작품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춤사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8) 2004년 3월 29일. 필자와의 인터뷰.

이매방의 춤은 그가 평소에 주장하는 네 가지 개념으로 축약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춤의 정신은 그가 전통춤 작품을 공연할 때에 무대 전면 뒤에 액자의 형태로 걸어놓은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전통춤의 정신을 상기하고자 하는 이매방의 춤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정중동, 대삼소삼, 양우선, 비정비팔로 축약될 수 있으며, 이는 이매방 특유의 호남류 전통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디딤, 비디딤, 좌우걸이, 완자걸이, 잉어걸이와 같은 하체중심의 발디딤 동작과 상오리, 앙가랑, 확대, 지숫기 등과 같은 상체중심의 동작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정중동(靜中動)은 한국 전통예술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춤의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하듯 이매방의 전통춤에서는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어지는데, 이 정중동을 ‘靜: 고요하다, 中: 가운데, 動: 움직인다’라고 풀어본다면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진다.

특히, 이매방은 현재 주어지는 한국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요즘 한국춤은 활발하고 시원하고 대담하기는 하지만, 정(靜)이 없어. 모두들 동(動)적으로만 춤을 추지. 안으로 고요하게 절제하며 요염한 자태를 품어내는 정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이야. 그러나 내 춤에는 정의 있지. 정은 암늬이고, 동은 숫늬이야. 이것이 바로 남과 여, 활달함과 조용함, 밝음과 어둠, 해와 달, 즉 음양이라고 할 수 있지”<sup>19)</sup> 라며, 자연적인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중동의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정중동의 움직임은 이매방의 전통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인 ‘맺고’, ‘어르고’, ‘푸는’ 지숫기 사위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대삼소삼(大杉小杉)은 이매방이 전통춤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는 장단의 강약을 나타내는 용어로, 처음 1박과 2박이 ‘강’으로 짝을 이루고 3박과 4박이 ‘약’으로 짝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특히 대삼소삼은 이매방 자신이 민속음악의 장단에 능하여 춤의 박자가 정확하고, 한국 전통의 민속음악과 무속장단을 사용하여 여러 작품에서 다양하게 구사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춤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양우선(兩雨線)은 정중동의 개념과 유사하게 춤사위의 흐름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을 뜻한다. 손, 발의 모든 동작은 양우선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머리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발은 뒤꿈치부터 앞부분으로 옮겨가며, 팔은 옆이면 뒤집어지고 뿌리가 내려오면 끝이 올라가고, 끝이 쳐지면 뿌리가 올려지는 등 자연스러운 팔 동작<sup>20)</sup>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정비팔(比丁比八)은 한자의 형태와 비슷하게 발을 딛는 보법이라 할 수 있다. 즉, 丁자나 八자로 발을 완전하게 딛는 보법으로 호남류 전통춤의 섬세한 발디딤은 여기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디딤은 하나에 오른발을 힘차게 딛고 왼발을 발끝으로 딛어 오른 발 옆으로 붙여 바깥을 향하며, 둘에는 제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셋에는 그 무릎을 위로 펴며, 넷에는 무릎을 약간 굽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매방이 계승해오고 있는 호남류 전통춤의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춤사위는 아무래도 섬세한 발디딤이라 사료된다. 이매방은 그의 춤을 전수할 때, 끈적끈적하게 들어올

19) 2004년 4월 5일. 필자와의 인터뷰.

20) 성경린(1991). p. 84.

리는 발디딤을 특히 중시하는데, 이러한 목직한 발디딤에서 정중동의 정의 요소가 표출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호남 특유의 춤특징은 정중동, 대삼소삼, 양우선, 비정비팔, 비디듬, 좌우걸이, 완자걸이, 잉어걸이, 앙가랑, 지숫기 등의 십여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매방의 주요작품에서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춤의 특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손꼽을 수 있다. 이매방 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승무」, 「살풀이춤」에서 나타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은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은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 그대로 움직이며, 직선보다는 곡선을 중시하는 그의 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정중동의 요소가 완벽하게 구현된 춤이라 할 수 있다. 정중동의 조화는 곧 음양의 조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매방의 주요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우선, 대삼소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매방은 정중동 중, 특히 정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의 특징인 조용하고 요염한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표출된다고 하겠다. 그의 춤에서 ‘정’의 발현은 화려한 춤사위 속에서도 절제된 감정표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매방의 춤에는 그의 인생에서 반추할 수 있는 한이 곳곳에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은 ‘그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매방의 춤은 섬세하고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늘이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이매방의 전통춤에서만 볼 수 있는 호남특유의 섬세한 비디듬이 있다. 비정비팔로 축약되는 호남류 춤의 발디딤은 섬세함의 극치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발디딤은 「입춤」, 「살풀이춤」, 「사풍정감」 등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이매방 자신이 호남류 민속장단에 능하여 장단과 발디딤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남성이 추는 가장 여성적 끼가 넘쳐흐르는 춤이다. 여성보다도 오히려 더 섬세하고 끼가 넘치는 이매방의 춤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기교와 끼를 넘어서는 무아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자신을 던져 몰아의 경지에서 행해지는 ‘춤, 그 자체의 춤’을 추구하는 그의 이러한 철학이 몸에 베여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이매방의 춤은 남성이 추는 가장 여성적인 춤이라 할 수 있다.

#### IV. 이매방의 예술세계

이매방의 예술세계는 ‘삶이 춤이며, 춤이 또한 삶’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춤 이외엔 거의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전통춤 계승과 전수에만 매진해온 그의 삶과 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예술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매방의 대표적인 춤인 「승무」, 「살풀이춤」은 한국 전통춤의 백미라 일컬어지는데, 이 춤을 감상한 사람들이라면 그를 명무라고 지칭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1977년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이매방의 춤을 보고 원로 언론인 홍종인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 8월 3일자 ‘이매방씨의 승무를 보고’라는 기사를 기고하였다.

‘등골을 으쓱 들었다가 놓는 그 순간 그 깊은 한숨소리는 들은 바 없었으나, 그 순간의 한숨은 하늘이 꺼지는 듯싶은 느낌이였다.....’李씨의 춤이 각별하다는 점은 악곡이 지닌 장단과 가락 속에 섬세하고 대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온몸에 매듭과 힘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작동하고 있다는 그 기교를 훨씬 넘어서 그의 전신에 넘쳐흐르는 예술적, 창조적 그리고 또 즉흥적인 감흥이 압도적이었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sup>21)</sup>

이 평은 이매방의 「승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진솔하게 춤의 특성에 파고든 놀라운 평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또한 이매방의 거의 모든 공연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차범석은 2001년 이매방의 공연 프로그램 축문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

‘사르르 내려간 듯한 그의 눈에는 항상 우수가 담겨있다. 약간은 처져내린 가냘픈 어깨의 선은 누군가가 덩석 안으면 금세 허물어질 것만 같다. 그러나 그가 땅 위에 엎드린 자세로 침묵을 지키다가 몸을 꿈틀 일으키는 승무 첫 장단과 장삼의 물결은 바로 힘과 의지와 탐구로 달구어진 화신이다. 무대 위에 가득한 그 그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허공을 가득 채운 춤사위의 파장은 이미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가 즐겨 쓰는 말인 정중동의 세계가 거기에서 태어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오하고, 완만한 것 같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의 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매방의 춤을 가리켜 감히 명무라고 말할 수가 있다.’<sup>22)</sup>

이매방의 「승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받은 「살풀이춤」에 대한 평도 여러 가지가 있다. 원로 국악인 성경린은 “이매방은 승무로서도 오늘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 살풀이에 있어서는 더더욱 애착과 애정을 갖고 이 춤에 대한 자신, 자긍, 자존이 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sup>23)</sup>고 이매방의 살풀이춤에 정확하고 세심하게 논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적 미학의 극치로 표현되는 이매방의 「살풀이춤」은 극도의 긴장과 절제, 어둡고 밝음, 괴로움과 갈등을 교차하면서 정(靜)속에 폭발을 감춘 최고의 무작(舞作)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4)</sup> 또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의 춤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으로는 한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허공을 다스리는 춤, 슬피 끝난 일들을 잊으려는 듯, 애절과 비절이 출렁이는 눈물의 춤’<sup>25)</sup> 이라는 표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이다.

지금까지 이매방 전통춤을 보고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평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매방이 지니고 있는 춤의 특질을 다양하게 언급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매방은 ‘춤’ 이외의 다른 것에는 한눈을 팔지 않은 춤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러 공연의 모든 의상과 소품, 장신구 등을 직접 제작하는 한편, 무용과 관련된 모든 소일-음악편집, 다리미판 제작, 음악테잎 보관장-을 손수 만드는 모습에서 춤 밖에 모르고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매방은 청소, 음식, 가구제작, 바느질 등 여러 방면으로 춤재주 만큼이나 뛰어난 손재주를 과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이매방은 마치 웅장한 큰 산을 품에 안은 듯, 깊고 넓은 춤의 폭을 느끼게 해준다. 그의 삶과 춤의 특질을 종합하여 살펴본 이매방의 예술세계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자연미의 극치를 구사하는 그의 춤은 음양의 조화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정중동의 조화가 완벽한 그 춤은 ‘그늘’과 ‘여성적인 끼’가 절제되어 있다.

둘째, 이매방의 인간적인 솔직함이 반영된 감정표현이 직설적인 춤사위가 특징이다. 젊은

21) 성경린(1991). p. 82.

22) 2001년 12월 17~18일. 『외길인생 이매방 춤 대공연』 프로그램 자료.

23) 성경린(1991). p. 83.

24) 이세기(2002). p. 321.

25) 앞의 글(2002). p. 321.

시절 이매방의 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솔직한 인간미가 그대로 반영된 춤의 특질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춤사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이 절제되어 더 완숙한 춤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매방의 개인공연에서는 이십여 년 동안 변함없이 주요 12작품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세부적인 동작과 기교에는 변화가 있으나, 호남류 전통춤의 본질을 고수하여 전수·계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의상, 소도구, 족두리, 음악테잎 보관장 등 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수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문하에 있는 100여명의 이수자에게 손수 의상과 소도구를 제작하여 공연하게 할 만큼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IV. 맺음말

본 논문은 이 시대 최고의 춤꾼으로 팔십 평생을 살아온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그의 삶의 철학과 주요 작품, 춤의 특질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이매방은 이 시대의 전통춤의 살아있는 정신이자, 원형 그대로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진정한 춤꾼이다. 그는 삶이 춤이며, 춤이 또한 삶이었다. 이매방 춤의 매력은 자연스러움의 극치와 그의 삶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듯이 ‘한의 그늘’이 깊숙이 녹아내린 절제된 춤사위로 묘사할 수 있다.

이매방의 춤인생과 주요 12작품에서 특징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춤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이매방의 춤은 자연스러움의 극치로, 정중동의 조화가 확연하게 동작에 나타나며, 호남특유의 섬세한 발 디딤이 있다. 이러한 섬세함은 남성이 추는 가장 여성적인 춤으로 나타나며, 화려하고 섬세한 춤사위 속에 한의 ‘그늘’이 담겨있는 것 또한 이매방 춤의 특질이라 하겠다.

이러한 춤의 특질을 지닌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미의 극치를 구사하는 그의 춤은 음양의 조화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정중동의 조화가 완벽한 그의 춤은 ‘그늘’과 ‘여성적인 끼’가 절제되어 있다.

둘째, 이매방의 인간적인 솔직함이 반영된 감정표현이 직설적인 춤사위가 특징이다. 젊은 시절 이매방의 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솔직한 인간미가 그대로 반영된 춤의 특질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춤사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이 절제되어 더 완숙한 춤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매방의 개인공연에서는 이십여 년 동안 변함없이 주요 12작품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세부적인 동작과 기교에는 변화가 있으나, 호남류 전통춤의 본질을 고수하여 전수·계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의상, 소도구, 족두리, 음악테잎 보관장 등 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문하에 있는 100여명의 이수자에게 손수 의상과 소도구를 제작하여 공연하게 할 만큼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이매방의 예술 세계를 그의 삶의 철학과 주요 작품, 춤의 특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궁극적으로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매방의 춤은 자신의 예명 ‘매방(梅芳)’과 같이 겨울 한철을 곳곳이 견디고 첫 봄을 알리는 매화꽃의 절개 있는 아름다움과 같다고 생각된다.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인내하고 고뇌한 그 인고의 세월이 그의 춤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춤에 대한 고집과

인고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완전히 그의 몸속에 녹아내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매방의 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첫 봄을 알리는 매화꽃의 향기가 그리도 아름답고 그윽한 것은 매서운 겨울을 견디어 냈음의듯이, 이매방의 춤 또한 역경의 삶을 이겨내고 오로지 전통춤만을 고집한 그의 춤정신에서 묻어져 나오는 삶의 '그늘'이 춤에 녹아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시대의 진정한 전통춤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매방의 예술세계를 고찰한 논문으로, 선행연구 자료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많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후학들에게 그의 춤의 특질을 연구하고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강석경(1982). 신들린 북의 명무인. 『문학사상』, 1982년 8월호.
- 구희서(1985). 『한국의 명무』, 한국일보사.
- 이세기(2002). 『빛을 가꾸는 에피큐리언』, 푸른 사상.
- 이매방(1978). 영육의 천직. 『춤』, 1978년 6월호.
- 성기숙(2001). 원로예술인에게 듣는다 - 무용가 이매방. 『문화예술』, 2001년 2월호.
- 성경린(1991). 한국무용의 맥락 천자의 명무-이매방. 『무용한국』, 1991년 봄호.
- 이매방(2001). 『외길인생 이매방 춤 대공연』 프로그램 자료.
- 백현순(1999). 이매방 승무의 춤동작 분석을 통한 사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인숙(2000). 살풀이춤의 류파별 춤사위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stract

###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 Myung-Sook Kim  
*Professor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re-illuminate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focused on the philosophy of his life, his main works 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is dance.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distinctive quality of his dance and his artistic world shown in his main 12 works and his philosophy of life.

He was born in Mokpo in 1927 and he liked to dance since childhood. He began to learn to dance Seungmu, Bubgo, Gummu and has been pushing on the Korean traditional dancing for almost 80 years.

His main works are Seungmu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7', Salpuri designated 'No. 97', Gummu, Ipchum, Janggummu, Janggochum, Sapungjunggam, Hwarangdo, Seungchunmu, Giwonmu, Boryummu and Booksori.

The distinctive feature of Lee-Maebang dance shown in his lifelong dance and his main 12 works is the combination of static and dynamic movement in its highest reach of naturalness. There are very delicate foot treads specific in Southeastern Region in his dance and these are extremely womanly dance performed by man.

The touch of "shade" in the magnificent and delicate dance movement is the feature of Lee-Maebang dance.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dance is as follows:

Firstly, his dance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brightness and darkness in its highest reach of naturalness.

Secondly, the feature of his dance movement is straightforward feeling reflected by his candid life style.

Thirdly, his personal performances are invariably on his main 12 works inherited and succeeded as he quintessence of Southeastern Region traditional dance.

Fourthly, he himself makes costume, properties, Jokdoori, etc. needed for dance.

Probing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specific in his philosophy of life, his main works and his feature of dance, I focused on the re-illumination of his artistic world. I contemplated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who lives himself as a serious traditional dancer. I think this is deficit because of little prior studies. I hope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cceeding scholars who want to study and investigate the artistic world of Lee-Maebang.

к с і